



한국기독교총연합회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총무: 박영률 목사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1호 TEL:(02) 741-2782~5 FAX:(02) 741-2786
Homepage : www.cck.or.kr / www.missionland.net E-mail : cck@missionland.net

보도자료

발신 : 한기총 홍보국
수신 : 한기총 출입기자

● 홍보국장 김 청 ☎ (02) 741-2782

● 제공일 : 2001. 06. 01. / 총 02 쪽

<http://www.cck.or.kr>의 '한기총소식'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법’은 특혜 입법

집총거부 합법화 추진으로 병역기피 조장

‘인권’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 억지 미화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법’은 ‘집총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KBS와 MBC가 이 문제를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룬 데 이어 「한겨레21」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 그 취지와 논지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약 1만 여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거부에 따른 병역기피 또는 병역거부로 수감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지금도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어 대체복무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영달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여 대체복무의 길을 여는 병역법의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입법 활동에는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으나 토론자들 가운데 인권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법제정 및 개정을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총무: 박영률 목사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401호 TEL:(02) 741-2782~5 FAX:(02) 741-2786
Homepage : www.cck.or.kr / www.missionland.net E-mail : cck@missionland.net

841.9

보도자료

발신 : 한기총 홍보국
수신 : 한기총 출입기자

● 홍보국장 김 청 ☎ (02) 741-2782
● 제공일 : 2001. 06. 01. / 총 02 쪽

<http://www.cck.or.kr>의 '한기총소식'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법’은 특혜 입법

집총거부 합법화 추진으로 병역기피 조장 ‘인권’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 억지 미화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법’은 ‘집총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제’란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KBS와 MBC가 이 문제를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룬 데 이어 「한겨레21」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 그 취지와 논지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약 1만 여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거부에 따른 병역기피 또는 병역거부로 수감되었으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지금도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계속 투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당사자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정배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어 대체복무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영달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여 대체복무의 길을 여는 병역법의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입법 활동에는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으나 토론자들 가운데 인권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법제정 및 개정을 반대

하고 있는 국방부 측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이때 이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면서 합당한 사유에 의해 대체근무를 신청했을 경우에 이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비쳤다.

장영달 의원 측에서는 법안 초안에서 “현행 ‘병역법’이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들을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공익적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라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이 되면 교육소집도 받지 않으며 복무기간은 3년 4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복무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국민역은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전시에 근로동원만 하기 때문에 소집이나 교육 훈련도 없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목사)는 성명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으로서 징집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면서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식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좋은 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끼치는 피해는 간과하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을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법안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면서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이 자유가 있는 만큼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많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401호
TEL:(02) 741-2782-5 FAX:(02) 741-2786
Homepage : www.cck.or.kr / www.missionland.net
E-mail : cck@missionland.net

성명서

-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

최근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소위 '대체복무제'가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에 의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이 대체복무제 입법 또는 병역법의 개정을 반대한다.

이 문제를 거론한 KBS와 MBC의 시사프로그램과 「한겨레21」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개입되어 있음과 그들을 위한 특혜입법임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으로서 '집총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징집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식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 보장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이 끼치는 폐해는 간과하고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부작용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이 자유가 있는 만큼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이만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 오성환

“집총거부 종교인 병역특혜 웬말”

민주의원 2명, ‘40개월 공익근무’대체 입법추진에
기독교계 “형평성 위배”... 일부 “개인 양심 존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일부 종파의 신도들이 40개월간의 공익요원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을 정국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보충역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인성 및 자질검사를 통해 40개월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역 복무대상자가 허위로 종교적 신념을 사칭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복무를 한 예비역들과 기독교 등 종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영달 의원 홈페이지(www.ydal.or.kr)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져야 할 병역의무가 훼손되고 있다”며 “그들은 총 들기를 거부할 정도로 평화를 원한다면 지난날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운동은 외면했던 사람들”이라는 등의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가뜩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갖가지 병역기피로 많은 젊은 장병들이 얼마나 허탈해하는 줄 아느냐”며 “특정 교리를 가진 종교집단에만 특혜가 주어지면 또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에서는 특정 종교인에게만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종교적인 신념을 빙자하는 젊은이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단체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J·L종파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특정 종교인들에게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준다면 군 면제 뒤 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일부 종교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지상의 정부를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교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심적 징병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남북 대치 상태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무시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재영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특정 종교를 떠나 개인 양심을 존중하고 국가적 낭비 요인이 되는 수형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은 필요하다”고 장 의원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적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 간사 황필규 목사는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근무케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유용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작용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특정종파 사칭 현역복무 기피 심해질것”

기독교군선교연 문은식 사무총장

“국방의 의무와 종교적이 신념을 연계시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이며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일부 종파의 신도들을 공익요원 근무로 대체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문은식 사무총장은 이같이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국방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핑계로 몇몇 종파 신도

들에게 공익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종교적 차별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총장은 이같은 종파 신도들에 대한 병역의무 예외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 각 이의 단체의 견장을 수 없는 요구에 봉착하며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불신과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이 사회에 만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총장은 “만약 어떤 사람이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예외가 되는 일부 종파의 신도로 등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고 반문했다.

문총장은 특히 병역의무 이행의 예외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종파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대상인 만큼 이들을 위한 병역 특혜가 현실화할 경우 교계의 엄청난 저항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독교는 자칫 방황할 수 있는 군복무 기간에 신앙의 힘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장려하는 만큼 군선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종파 신도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한다면 이는 교계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욱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1호
TEL : (02) 741-2782-5 FAX : (02) 741-2786
Homepage : www.cck.or.kr / www.missionland.net
E-mail : cck@missionland.net

한기총 제 2001 - 072호

2001. 6. 4.

수 신 : 새천년민주당 장영달 의원

제 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반대의 건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 의원님이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소위 '대체복무제'를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본 회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이 대체복무제 입법 또는 병역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그 이유를 첨부한 '성명서'와 같이 밝혀 드리오니 법안 발의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며 병역문제 외에도 '수혈거부'와 '종말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런 '여호와의 증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병무와 국방에 혼란과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5.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한국교회는 이 문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통과 저지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첨 부 : 성명서(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 1부 "끝".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이만신
총무 : 박영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 오성환

